

전재용·박상아 8월 국내서 결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3) 씨가 탤런트 박상아(35)와 8월 중순께 서울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0일 "전재용과 박상아가 결혼을 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예식을 언제, 어디서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스프츠월드라는 이날 두 사람이 8월 중순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미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상아는 '아이비'로 알려진 15개월 된 딸의 이름에 대해 이는 자신의 미국식 애칭이며 딸의 이름은 '혜현'이라고 바로잡았다고 스포츠월드는 전했다.

전 씨 가족은 5월 중순께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서울 삼성동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아는 2003년 전재용 씨 비자금 연루설에 휘말려 2004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탤런트 채정안, 1년 6개월만에 파경



탤런트 채정안(30)이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05년 12월 PR회사 마케팅담당 임원 김상철(33) 씨와 결혼한 채정안은 이날 초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서울 한남동의 신혼집에서 나와 친정 식구들과 지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불화의 조짐을 보던 김상철-채정안 커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에게는 2세가 없는 상태. 채정안은 2005년 드라마 '해신'에서 장보고 최수종의 상대 역으로 출연한 지 2년여 만인 올해 5월 '커피프린스 1호점'에 주연급 배역 한유주 역으로 캐스팅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광고롭게 한유주는 드라마에서 당당한 독신녀 화가로 등장한다.

한지일, 미서 '佛 코냐 모델' 발탁



영화배우 한지일이 프랑스 코냐 브랜드인 랜디 X.O의 미주 23개 지역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1970~80년대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90년대 비디오 제작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한지일은 17년 만에 광고 모델로 나서게 됐다.

한국의 유명 배우와 경합을 벌였는데 내가 낙점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연기 활동을 재개해 영화와 드라마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냐 페랑사와 맺은 계약은 신문과 포스터를 통한 광고 촬영 8회, 10월까지 시장 반응을 살펴본 후 계약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성포 단오제 주관한 오진근 단오보존회장

"400년 전통... 문화재 지정 보호해야"

"400년을 이어온 법성포 단오(端午)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재 지정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근(62) 법성포 단오보존회장은 우리나라 단오 축제를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성포 단오제가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지난 19일 막을 내린 올해 법성포 단오제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연 것도 법성포 단오제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8일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민속학 연구소 전경옥 교수와 전남대 나경수 교수 등 200여 명이 참가해 '법성포 단오제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오 회장은 "다른 지역의 단오제가 어울림만 있고 나눔의 장이 없는데 비해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의 장이 있다"며 "법성포 지역에서는 단오날은 남녀노소, 귀천의 구분없이 음식을 '나눠먹는 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법성포 단오제는 조상의 얼과 흥, 멋이 깃든 전통적 가치를 재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예년과 같이 올해도 모든 행사를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치렀다. 행사비용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충당했다. 행정관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단오제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오 회장은 "법성포 단오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풍양속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법성포 단오제는 지난 1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현장평가를 통해 전남도가 선정한 '2007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뽑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가슴 아파서 5·18영화 못 봐"

김수환 추기경 '화려한 휴가' 시사회 사양

김수환 추기경이 영화 '화려한 휴가'의 특별시사회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사양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7월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특별시사회에 김 추기경을 초청했으나 "나는 가슴이 아파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자네들은 정말 그 사건을 몰라"라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화려한 휴가'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항쟁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 항쟁이 일어나자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안성기, 김성경, 이요원, 이준기 등이 출연한다. 제목 '화려한 휴가'는 당시 공수부대의 시민군 진압작전명이다. CJ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한국 현대사의 정서적 지주였던 김 추

기경에게 이 영화를 헌정하는 뜻으로 김 추기경과 사제단을 초청 시사에 초청했다. '화려한 휴가' 출연자 이면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안성기 씨가 김 추기경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김 추기경이 '1980년 광주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어 제대로 영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CJ 측은 광주민주화항쟁의 또 다른 축이었던 특전사(옛 공수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시사회를 추진했으나 군 관계자

로부터 "군은 가치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화려한 휴가'는 상업영화면에서도 광주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시사회 요청이 영화사 측에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CJ 측은 7월5일 언론 시사회를 시작으로 특별시사회를 잇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외신기자클럽도 특별시사회를 요청했으며, 대학가에서도 영기 씨가 김 추기경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김 추기경이 '1980년 광주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어 제대로 영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CJ 측은 광주민주화항쟁의 또 다른 축이었던 특전사(옛 공수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시사회를 추진했으나 군 관계자

로부터 "군은 가치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화려한 휴가'는 상업영화면에서도 광주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시사회 요청이 영화사 측에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CJ 측은 7월5일 언론 시사회를 시작으로 특별시사회를 잇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외신기자클럽도 특별시사회를 요청했으며, 대학가에서도 영기 씨가 김 추기경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김 추기경이 '1980년 광주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어 제대로 영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CJ 측은 광주민주화항쟁의 또 다른 축이었던 특전사(옛 공수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시사회를 추진했으나 군 관계자

마릴린 먼로 '영화속 최고의 드레스'

마릴린 먼로가 영화 '7년만의 외출'의 지하철 통풍구 장면에서 입었던 드레스가 영화 속 최고의 드레스로 꼽혔다. UPI통신이 19일 보도했다. UPI통신이 인용한 영국 패션 웹사이트 '미스버터플라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로의 흰색 울터넥 원피스가 1위를,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입었던 검은색 지방시 드레스가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애니메이션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에서 제시카 래빗이 입었던 빨간 드레스가 올랐으며 줄리아 로버츠가 '귀여운 여인'에서 입었던 원피스와 샤론 스톤이 '원초적 본능'에서 입은 드레스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장애우 이동 돕는 차량봉사대 고마워"

재활교실 운영 무안보건소 박막동 방문보건 담당

박막동 무안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근 지역교회 '차량봉사대'가 조차돼 한결 마음이 놓인다. 해례면 중앙교회(목사 장관철) 등 지역 내 8개 교회에서 '차량봉사대'를 결성, 교회차량을 이용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활교실과 현장체험 행사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게 된 것. 무안군내 장애인은 모두 234명. 이번 차량봉사대 결성에 따라 무안군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재활치료 건강체험교실'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 무안군 보건소는 지난 2005년부터 '재활거점 보건소'로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재활치료 교실 운영과 함께 휠체어와 4발 지팡이, 보행기 등 장애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지난 8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박씨는 "개인택시 참여자와 8개 교회 차량봉사대가 너무 고마울 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서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더 늘릴것"

건교부장관상 받은 부영 김상근 상무

(주)부영의 김상근(48) 상무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상무는 "부영은 지금까지 총 18만5천여세대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14만9천여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지난 1988년 (주)부영에 입사한 이후 줄곧 임대주택 분야에 일하면서 국내 주택산업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



제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려는 한편 언론홍보에도 주력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주)부영은 국내·외 교육지원 사업 등 각종 사회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난 2001년 건교부장관 표창, 2002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임석준 회장, 고향 무안에 가전제품 기증



무안출신 임석준(69·왼쪽) 임석상사 회장이 19일 김치병 정교·에어컨 등 5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고향에 기증했다. 기증품들은 복지시설인 청계면 에덴원과 각 읍·면 노인회 165개소에 전달됐다. 심향면 출신인 임 회장은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가전제품 등을 무안군에 기증, '기증왕'으로 불리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삼천(광주대 스포츠레저학부 교수)씨 장남 형남군 오웅택씨 장녀 정민양=23일(토) 오후 1시 유포아웨딩홀.
▲김천주(광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남 강현군 안동혁씨 장녀 미애양=23일(토) 오후 1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이희일씨 장남 창호군 강민원(광주시 환경자원과장)씨 장녀 지선양=23일(토) 오후 1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심순택씨 차남 상구(미국 변호사)군 강정재(전남대 총장)·김 명(광주교육대 교수)씨 차녀 승희(미국 코네티컷주 대학병원 의사)양 = 23일(토)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예식장.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치료 장애인들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

- 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법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금) 오후 7시 흥부와 놀부. 373-3688
▲유은학원 총동문회 제 2차 정기 이사회(회장 박석남)=22일(금) 오후 7시 상록웨딩홀 3층. 361-2680
▲조대부고 20회 동창회 모임 = 22일(금) 오후 7시 화랑궁 식당. 223-7370
▲재광 목포 제1여고 9회 동창회

- 모임=22일(금) 오후 6시30분 낙지 한마리와 수제비. 011-617-6695
▲광덕고 2회 동창회 총회=23일(토) 오후 6시 에벌루션웨딩홀. 017-601-1190
▲진흥고 제 3회 동창회(회장 조래길) 모임=23일(토) 오후 7시 상록화관 4층. 016-603-6200
▲서강고 제 8회 동창회(회장 김용식) 모임=23일(토) 오후 5시 마스터스관광호텔 3층. 017-617-3985
▲광주 방림초교 총동문회 창립 총회=23일(토) 오후 2시 모교 강당. 019-601-1898

종친회

- ▲청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21일(목) 오후 7시30분 광명해물탕. 010-6688-8983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 =22일(금)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225-5631
▲연인차씨 종친회 광주전남지부(회장 차호철) 정기총회=23일(토)

- 오전 10시30분 신성식당. 232-0177
향우회
▲재광 보성을 향우회(회장 안명섭) 정기총회=25일(월) 오후 7시 미원화타운. 226-4743
▲재광 영암군 미암면 향우회(회장 김재균) 모임=25일(월) 오후 7시 화석시대. 381-8788

모임

- ▲재광 순천중고 테니스모임=23일(토) 오후 3시 동신고 코트. 016-652-8040

모집

- ▲광주향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 =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 고령자. 문의 511-0011~3
부음
▲베이만씨 별세 상익(동신고 교사)·상범(삼호중공업)·상운(서울지하철공사)씨 부친상 오치석(인천공항공단 법무팀장)씨 빙부상=발인 21일(목)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000
▲윤준호씨 별세 홍길(대중건설 대표이사)·홍남(중흥건설 토목부차장)씨 부친상 박형남(건축업)·나득주(지오건설 대표이사)·최재영(자영업)씨 빙부상=발인 21일(목)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600-7406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골목특별분양
문의 (062)521-1100